

고전의 숨결 4K 스크린으로...

광주극장 4K영사 첫 기획전 'CINEMA GWANGJU'

김소동 '돈'·이명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오는 7월6일까지 복원 고전·국내외 명작 상영



광주극장이 개관 90주년을 맞아 새로운 4K 레이저 영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기념하는 첫 기획전으로 '4K CINEMA GWANGJU'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7일부터 7월6일까지 열흘간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와 동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이 후원한다. 이번 기획전은 2023년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마련됐다. 4K 디지털 복원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상영은 향상된 환경에서 고전의 감동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먼저 한국영상자료원이 복원한 김소동 감독의 '돈'(1958)과 윤용구 감독의 '마음의 고향'(1949)은 각각 27일과 29일에 상영된다.

'돈'은 농사꾼 봉수가 사채꾼의 빚에 빠져 구제품 장사에 나섰다가 사기단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는 이야기다. 1950년대 후반 농촌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낸다.

'마음의 고향'은 극작가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각색한 작품으로, 산사의 동승인 도성과 아들을 잃은 미망인의 관계를 통해 모정과 갈등, 성장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는 6월28일과 7월2일 두 차례 상영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날 오후 4시에는 이명세 감독이 광주극장을 찾아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를 갖는다. 비 내리는 골목에서 시작된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우 형사가 단서를 쫓아 범인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일본 애니메이션 상영작도 함께한다. 오토모가쓰히로 감독의 '아키라'(1988)가 6월29일과 7월1일 스크린에 걸린다. 제3차 세계 대전 이후 재건된 네오도쿄를 배경으로,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에 휘말린 소년 테츠오와 그의 친구 카네다의 이야기를 다룬다.

오시이 마모루의 '공각기동대'(1995)는 6월29일과 7월6일 상영된다. 서기 2029년, 인간의 뇌가 통신 네트워크의 일부가 된 사회를 배경으로 '고스트'를 해킹하는 범죄를 다루며 인간의 정체성과 기술의 경계를 질문한다.

소마이 신지의 '이사'(1993)는 7월6일 관객들과 만난다. 부모의 이혼 소식을 들은 초등학생 렌코가 친구들과 함께 일상을 견뎌내며, 부모가 다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다.

조나단 글레이저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2003)는 6월30일과 7월6일 상영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장 루돌프 히스 부부의 일상을 통해 극단적인 대비를 그려낸다. 다섯 아이를 끔찍이 아끼는 가정적인 아버지이자 동시에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학살을 계획하는 나치 장교인 히스의 이중적 모습은 극도의 긴장을 연긴다.

마지막으로 스텐리 큐브리크의 '배리 리든'(1975)은 6월29일과 7월5일에 상영된다. 아일랜드 청년 배리가 귀족 사회로 진입해 몰락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렸다. 촛불과 자연광만을 조명으로 활용해 18세기를 유화처럼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람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9천원, 실버 7천원이며 3편·5편 패키지도 구매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 광주극장 지정 기부자는 자유관람이다.

/최명진 기자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국제 예술계 활동 가시화
구혜영 작가, 독일 뮌헨 시청 갤러리 전시 참여

광주를 기반으로 한 창작공간 호랑가시나무창작소가 유럽 예술계와의 본격적인 교류에 나섰다. 독일 뮌헨의 창작 플랫폼 PLATFORM과 협력해 지역 예술가 과연 및 전시에 참여하며,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지난 4월 구혜영 작가를 뮌헨에 파견했다. 구 작가는 자아와 타자의 간극을 '사이'의 개념으로 풀어내며, 공존과 경계 넘나듦의 이미지를 탐구해 온 작가다.

그는 뮌헨 시청사 내 공공 전시공간에서 열리는 국제 교류 전시 'Want to stay where I have never been (가본 적 없는 곳에 머물고 싶다)'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뮌헨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세 예술 프로젝트가 공동 기획했으며, 한국·독일·이탈리아 작가들의 레지던시 체험 기반 작품들을 소개한다.

/최명진 기자

'Contrast'...시대를 가로지른 두 걸작의 만남

오늘 시향 정기연주회...피아니스트 임주희 협연

시대와 정서, 양식의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두 작품이 광주 시립교향악단 연주로 펼쳐진다.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는 광주시향 39회 정기연주회 'Contrast'다.

이날 무대의 문을 여는 작품은 고전주의 음악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이다. 이 곡은 피아노 협주곡의 전기를 이룬 기념비적 작품으로 장려하고 위용당당한 곡상과 탄탄한 구조가 특징이다. 섬세함과 강인함을 겸비한 피아니스트 임주희(사진)가 협연한다.

임주희는 9세의 나이로 러시아 백야의 별 페스티벌에서 마린

스키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펼치며 세계무대에 데뷔했다. 2014년 서울시향 협연을 계기로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이끄는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꾸준히 협연을 이어나갔다.

이어지는 곡은 프로코피예프가 고단했던 생애의 끝자락에 남긴 '교향곡 7번'이다. 이 작품은 초기 프로코피예프의 강렬한 모더니즘과 후기 작품들의 서정성이 융합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보여준다.

/최명진 기자



【제18강】1. 건위천(乾爲天) 上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주역은 건위천, 곤위지로 시작하여 수화기제, 화수미제로 끝나고 다시 건위천으로 순환하는 주(周)나라 때 만들어져 사용한 역이다.

주역의 첫 번째 패인 건위천은 양효 여섯 획이 나란히 있는 패로서, 즉 상폐 하폐가 모두 건천(乾天)인 중폐(重卦)로 이루어져 중천건(重天乾)이라고 한다.

건위천(乾爲天)	乾, 元亨利貞	卦象
亢龍有悔	六龍御天之課	
飛龍在天 利見大人	龍示變化之象	
或躍在淵 无咎	困龍得水之象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蘌若	萬物資始之意	
見龍在田 利見大人		
潛龍勿用		

먼저 건위천의 길흉을 한마디로 단정하고 있는 단사(彖辭), 또는 괴사(卦辭)를 보면 '건(乾), 원형이정(元亨利貞)'이라 하고 있다. 즉 '건은 크게 형통하되 바르게 하면 이롭다'는 의미이다.

상전에서는 '천체의 운행은 언제나 강건하고 쉬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이, 군자는 스스로 노력하여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해서 '상월 천행건 군자이자 강불식(象曰 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이라고 말한다.

문전(文言傳)에서는 '원형이정(元亨利貞)에 대해 말 하길, '크다는 것은 선함이 자라는 것이니 원자선지장 애(元者善之長)이고 형통하다는 것은 아름다움이 모여 있는 것으로 형자기지회(享者嘉之會)이며, 이롭다는 것은 올바름이 학합하는 것이니 이자의지화(利者義之和也)이고 바르다는 것은 사물의 줄기가 되니 정자사지간 애(貞者事之幹也)'라고 말했다.

이로써 군자가 행하여 가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을 말하고 있으며 건(健)은 강건하여 나아가고 멈추지 않는 것으로 크게 형통을 얻는 것이지만, 항상 올바른 길을 따라 일을 행하여 하는 도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건괘의 상(象)을 보면 건은 용(龍)으로 여섯 용이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육용어천지과(六龍御天之課)이고 용이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용시변화지상(龍示變化之象)이며, 용이 승천하기 위한 물을 얻기 어려운 곤용득수지상(困龍得水之象)이고 만물이 비로소 바탕과 자격을 갖추기 시작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건(乾), 원형이정(元亨利貞)"

북방으로 여러 사람들과 동행하여 대도시로 가고 있고 돌이오기는 힘들다고 판단한다. 혼답 등의 경우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여자가 상대 남자를 점하는 것이라면 건(乾)은 남편이니 강건해 의지할 수 있음으로 좋은 인연으로 보고, 남자의 경우에 상대 여자를 점해 건괘를 얻은 경우라면 상대 여자는 내파 외파가 모두 강건 완고해 혼인은 불가하다고 판단한다. 잉태 등 임신(妊娠)의 유무는 잉태라고 본다. 병(病)은 건용(乾龍)이 변화가 심하여 전염성 유행병, 머리와 신경계통의 병이고 양(陽)이 충만하여 붓는 부종(浮腫), 불식(不食), 변비, 월경불순 등으로 보며 증상은 안정을 잃고 경과도 좋지 못하여 점차 무거워지고 결국 절망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상하폐가 같은 중폐(重卦)를 만나면 병점에서는 완치불가로 본다. 특히 건위천 불변괘를 드래프트 경우 여자가 강경함이 지나쳐 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

날씨는 계속 맑은데 여름에 점했을 때에는 가물고, 계속 맑은 때에 건괘를 드래프트하면 이제 양이 극(極)에 이르러 음이 되므로 비가 온다. 가을은 맑은 날씨로 좋은 날이고 겨울은 혹한(酷寒)에 큰 눈이 온다. 물가, 주가 등은 천정높이 있다.

건위천 불변괘를 얻었을 경우에 점고(占考)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소장생괘법(消長生卦法)을 보면, 건괘는 양(陽)이 차올라 지뢰복(地雷復)에서 시작하여 임(臨), 태(泰), 대장(大壯), 쾌(夬)에서 건괘(乾卦)로 변하여 다시 음(陰)이 자라는 천풍구(天風姤), 둔(遯), 비(否), 관(觀), 박(剝), 곤(坤)이 된다.

따라서 동효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장의 생애에 따라 건괘는 택천괘에서 천풍구의 방향으로 변화과정에 있거나 그와 반대로 천풍구로부터 택천괘로 가는 변화과정에 있음을 알아야 주단(推斷) 할 수 있다.

십이 소장생괘법(十二 消長生卦法)						
복(履) 11월	임(臨) 12월	태(泰) 1월	대장(大壯) 2월	茀(夬) 3월	건(乾) 4월	
구(姤) 5월	둔(遯) 6월	비(否) 7월	관(觀) 8월	택(剝) 9월	곤(坤) 10월	
십이 소장생괘법(十二 消長生卦法)						
복(履) 11월	임(臨) 12월	태(泰) 1월	대장(大壯) 2월	茀(夬) 3월	건(乾) 4월	
구(姤) 5월	둔(遯) 6월	비(否) 7월	관(觀) 8월	택(剝) 9월	곤(坤) 10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오행역(五行易)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건괘는 건금궁(乾金宮)의 수괘(首卦)로서 각효에 비신(飛神)과 육진(六親)를 붙여서 판단한다.

비신과 육진을 붙이면 좌측 표와 같다. 만일 동효가 없는 경우에는 점한 날이 자(子)날이면 자오증(子午冲)으로 오인 관귀효를 암동(暗動) 해 충(沖)하니 관귀(官鬼)가 발동해 재해, 방해, 장애가 있다고 보아 뜻한 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를 동봉일총이사(動逢日沖而事散)이라고 한다.

'모인의 병세 여하'를 문점해 건위천 불변괘를 얻은 '실점에'에서, 일본의 역점의 명인 아라이 하쿠카(新井白娥)는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건위천	천풍구(과거)	택천괘(미래)	택풍대과(주)

(乾坤同化六物新法)을 활용해 초효의 변화로 과거를 주적하고 상효를 변화시켜 미래의 변화를 예전한 다음, 초상효를 동시에 변화시켜 새로운 괘를 추찰하여 병의 진행 과정을 예단한다.

건위천의 초효를 변화시켜 천풍구(天風姤)로 과거에 주색음행(酒色淫行)에 빠져 악병(惡病)에 걸렸음을 알고, 상효를 변화시켜보면 택천괘(澤天夬)가 되어 이병의 뜬기로 올라와 '쾌괘(夬卦)'로 무너지는 모습'이 되니 목숨이 위태함을 알 수 있으며, 초상효를 동시에 변화시켜 보면 택풍대과(澤風大過)가 돼 '대과는 주총들이 약해 무너지는 상'이고 '관과에 뜻질을 하는 모습'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점단해 적중했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전)
-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 까지 직업전문가 양성

